

고려 태조 왕건의 임존군전투와 유금필의 역할*

김 명 진**

- I. 머리말
- II. 임존군(임존성) 위치 검토
- III. 충청지역의 판세와 임존군
- IV. 전투 전개과정과 유금필의 역할
- V. 맺음말

국문초록

925년(태조 8)에 고려 태조 왕건은 후백제 임존군(임존성, 충남 예산)을 공략하고자 하였다. 임존성과 일대 거점인 운주성(홍성)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앞서 918년 8월에 모반의 여파로 임존성과 운주성은 견훤의 후백제 영역으로 바뀌었다. 왕건은 즉시 아주(아산)와 예산현을 확실하게 장악하며 영역의 후퇴를 막았다. 왕건이 일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운주성 탈환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그 선행 조건은 임존성 장악이었다. 925년 10월, 왕건은 유금필을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으로 임명하였다. 유금필은 연산진(일모산성, 충북 청주)을 공격하여 성과를 올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0404).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 22mjk@hanmail.net

자마자 임존성으로 갔다. 임존성 공격 개시 날짜는 10월 12일부터 14일 중 어느 날로 고찰하였다. 유금필은 임존성을 함락시켰다. 이 전투 시 일단의 지역민들이 고려군에게 협조를 하였다. 왕건은 전투 승리 후 임존군의 새 이름을 포상으로 대흥군(大興郡)이라 하였다. 또한 왕건은 유금필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었다. 이후 왕건은 임존군전투 승리를 발판 삼아 운주도 장악하였다. 왕건이 최종 승자가 되는데 있어서 큰 밑바탕이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임존군전투의 승리였다.

◆ 주제어 _____

왕건, 견훤, 임존군(임존성), 운주, 임존군전투, 유금필의 역할

I. 머리말

고려 통일전쟁기에 벌어진 여러 전투 중에서 아직 주목 받지 않은 주제가 925년(태조 8) 10월에 벌어진 임존군전투(任存郡戰鬪)이다.¹⁾ 9세기 말과 10세기 초에 태조 왕건(王建)과 후백제 국왕 견훤(甄萱)은 패권을 위해 격돌하였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통일전쟁 전모 및 충청지역에 대한 격돌 양상 등 여러 실상들이 차례로 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왕건의 통일전쟁 전개 과정을 보면, 전장(戰場)이 몇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방지역, 경상지역, 충청지역, 나주서남해지역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충청지역, 특히 임존군전투를 주목하려 한다. 충청지역 최대 최고의 전투는 운주전투(홍주, 충남 홍성)였다.²⁾ 하지만 운주전투가 태조 왕건의 승리로 귀결되기 전에 그 밑바탕이 되었던 임존군전투의 중요성은 크다 하겠다. 이에 그 가려진 실상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유인요소이다.

고려 통일전쟁기 연구 성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주 연구는 고려 태조 왕건,³⁾ 태봉 국왕 궁예(泰封 國王 弓裔),⁴⁾ 후백제 국왕 견훤⁵⁾ 등을 주제로 하여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해전(海戰)이 중요

-
- 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8년, 동10월 기사;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유 8년 동10월.
 - 2) 운주전투는 927년 제1차 전투, 그리고 934년 제2차 전투 등 두 차례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제2차 전투가 통일전쟁 전체 판세를 좌우하였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군사』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3) 류영철, 「高麗와 後百濟의 爭覇過程 研究」,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김명진, 「高麗 太祖 王建의 統一戰爭 研究」,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통일과 전쟁, 고려 태조 왕건』, 해안, 2018;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해안, 2018.
 - 4) 신성재,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5)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해안, 2008.

하였음을 주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⁶⁾ 그런가 하면 특정 전장에 대한 양상, 특히 충청지역에 대한 여러 양상들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충청지역 실상들이 밝혀진 연구는 먼저 군현별(지역별)로 나누어 열거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운주(충남 홍성),⁷⁾ 면천(충남 당진시 면천면),⁸⁾ 예산,⁹⁾ 천안,¹⁰⁾ 공주,¹¹⁾ 논산,¹²⁾ 아산만,¹³⁾ 청주,¹⁴⁾ 충주,¹⁵⁾ 보은,¹⁶⁾ 진주(鎭州, 충북 진천)¹⁷⁾ 등이었다. 또한 주요 전투별로 실상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 6) 신성재,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해안, 2016.
- 7)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 74, 2004;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군의 역할」, 『군사』 96, 2015;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군사』 110, 2019.
- 8) 김갑동, 「羅末麗初의 沔川과 卜智謙」,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2001.
- 9) 김갑동, 「百濟 이후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 28,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99.
- 10) 김갑동, 「나말여초 天安府의 성립과 그 동향」, 『韓國史研究』 117, 2002; 「천안도독부의 성립과 군현제 변화」,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고려 태조대 천안지역의 사상적 동향과 사찰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48, 2017; 이정란, 「太祖妃 天安府院夫人과 天安府」,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 11) 김갑동, 「百濟遺民의 動向과 羅末麗初의 公州」, 『역사와 역사교육』 3·4, 웅진사학회, 1999;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주 일대 공략과정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6, 2019.
- 12) 윤용혁, 「936년 고려의 통일전쟁과 개태사」, 『韓國學報』 114, 일지사, 2004.
- 13) 김명진, 「太祖王建의 충청지역 공략과 아산만 확보」, 『역사와 담론』 51, 호서사학회, 2008;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역사연구소, 2012a.
- 14) 김갑동,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1985; 김주성, 「高麗初淸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1988; 신호철,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地方勢力」, 『湖西文化研究』 11,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3; 김수태, 「新羅末·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 『中原文化論叢』 1,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997.
- 15) 김수태, 「高麗初 忠州地方의 豪族 - 忠州 劉氏를 중심으로」, 『충청문화연구』 1, 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 1989.
- 16) 신호철, 「新羅末·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 『湖西文化研究』 10,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
- 17) 신호철, 「高麗의 建國과 鎭州 豪族 - 鎭州 林氏의 역할을 중심으로」, 『中原文化論叢』 1,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997.

그 사례는 일모산성전투(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¹⁸⁾ 삼년산성전투(충북 보은),¹⁹⁾ 운주전투²⁰⁾ 등이라 하겠다.

이러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존군전투는 자세히 조망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충청지역 최대의 전투인 운주전투는 그 중요성과 함께 역사적 성과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임존군전투는 운주전투의 마중물 정도로 한두 줄 기술되곤 하였다. 여기에 더해 무엇보다도 임존군전투는 매우 소략한 내용만이 사료에 남겨졌기 때문에 단일 연구 주제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왕건의 고려 측에 임존군전투의 승리가 안겨지지 못했다면 운주전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임존군전투는 충청지역 판세의 큰 전환점은 물론이고 전체 전장의 판을 뒤흔들었던 주요전투 중 하나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소략한 사료를 대조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답사를 시행하면서 준비되었다. 전쟁사 연구에 있어서 현장답사는 공간 구성을 글 속에 담아 실상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²¹⁾

이 글은 먼저 임존군(임존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곳인지 검토하려 한다. 이는 기본 이해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 당시 충청지역의 판세 속에서 임존군의 군사적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임존군전투의 전개과정과 유금필의 활약상을 정리해 보려 한다.²²⁾ 임존군전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이는 유금필이었다. 따라서 왕건은 왜 그를 이 전투의 책임자로 내정했으며 그의 역할은 무엇

18)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작의 역할」, 『군사』 85, 2012b.

19)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삼년산성전투, 그 배경과 전개과정 검토」, 『군사』 116, 2020.

20)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군사』 96, 2015;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군사』 110, 2019.

21) 임존성 답사는 2015년 6월 29일, 2021년 5월 19일과 5월 23일 등 3차례 시행하였다.

22) 유금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이 참고된다.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군사』 69, 2008; 「고려 태조 왕건과 유금필 장군」, 『인문과학논문집』 46,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신성재,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 유금필」, 『군사』 102, 2017.

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의문 해결 순서를 통해 임존군전투는 해명되려고 한다.

II. 임존군(임존성) 위치 검토

925년(태조 8) 10월에 벌어진 임존군전투의 주 전장은 임존성(任存城, 봉수산성, 대흥산성)이었다. 이곳은 앞선 시기인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멸망한 백제와 관련 있는 곳이었다. 임존성은 백제 복국(復國)²³⁾ 세력들의 주요 항전 근거지 중 하나였다. 이곳이 기록에 처음 등장한 때는 660년(신라 태종무열왕 7) 8월 26일이었다.

가) (660년 8월 26일에) 임존(任存)의 큰 목책(木柵)을 공격했으나 [적의(백제 복국 세력)] 병력이 많고 지세가 험준해 이기지 못했으며 다만 작은 목책만을 공격하여 쳐부수었다.²⁴⁾

위에 의하면, 신라(또는 신라·당 연합군)가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그 성은 지세가 험준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목책만 있었는지 석성이 있고 보조용으로 목책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백제 복국 세력의 병력이 많았고 큰 목책과 작은 목책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로보아 성의 규모가 컸다고 판단된다. 『고려사』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찾아진다.

나)-① [(대흥군(大興郡)은) 본래 백제(百濟)의 임존성[(任存城), 금주(今州)라

23) 이 글에서는 백제 부흥운동의 부흥이라는 용어 대신 백제 복국(復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실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27일에 예산문화원에서 임존성 안에 설치한 기념비의 명칭은 ‘임존성 백제 복국운동(復國運動) 기념비’인데, 여기서 ‘복국’이라는 단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한다.

2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8월 26일, “攻任存大柵 兵多地嶮 不能克 但攻破小柵”.

고도 한다]이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임성군(任城郡)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다시 고쳐 지금 이름으로 하였다. 현종 9년(1018)에 (홍주에) 내속(來屬)시켰다.²⁵⁾

나)-② [건치연혁], [(대흥현(大興縣)은] 본래 백제의 임존성 [(任存城), 금주(今州)라고도 한다] 이다. 신라가 임성군(任城郡)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현종(顯宗) 9년에 운주(運州)에 내속시켰다. …… [산천] 봉수산(鳳首山), 현 서쪽 2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 [고적] 임존성(任存城), 즉 백제의 복신(福信)·지수신(遲受信)·흑치상지(黑齒常之) 등이 (당 나라 장수) 유인궤(劉仁軌)에게 항거하던 곳이다. 지금의 현 서쪽 13리에 옛 돌성이 있는데, 그 주위가 5천 1백 94척이며, 안에 우물이 3개 있는데, 이 성이 아닐까 한다. …… 고려 태조가 후백제(後百濟)의 임존성을 공격하여 형적(刑積) 등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잡았다.²⁶⁾

먼저 나)-① 내용은 그 시간 순서대로 해석할 수 있다. 백제 때 이곳의 명칭은 임존성(任存城) 또는 금주(今州)였다. 백제 멸망 후에 신라 경덕왕은 이곳을 임성군(任城郡)이라 하였다. 이는 성 자체가 군현(郡縣)의 치소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다가 고려 초에 대흥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흥군은 1018년(현종 9)에 홍주(운주, 충남 홍성) 관할이 되었다. 그런데 나)-②는 대흥군이라 하지 않고 대흥현이라 하였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대흥군이라 하였다.²⁷⁾ 따라서 임존성(임존군)의 고려 초 명칭은 대흥군이 맞다 하겠다. 중요한 것은 925년 임존군전투 시 명칭은 임존성(임존군)이었다.

이에 더해 『대동지지』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내용들이 발견된다. 임존성은 백제의 지분촌(只分村)이고, 백제 멸망 후 당나라가 지심(支潸)으로 고치고, 지심주(支潸州)의 영현으로 만들었다. 당나라를 물리친 신라는

25)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홍주, 대흥군, “本百濟任存城(一云 今州) 新羅景德王改爲任城郡 高麗初更今名 顯宗九年 來屬”.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0, 충청도, 대흥현, 건치연혁, “本百濟任存城(一云 今州) 新羅改任城郡 高麗初改今名 顯宗九年 屬運州 ……”; 산천, “鳳首山 在縣西二里 鎭山 ……”; 고적, “任存城 卽百濟福信 遲受信 黑齒常之等拒劉仁軌處 今縣西十三里有古石城 周五千一百九十四尺 內有三井 疑此城 …… 高麗太祖攻後百濟任存城 殺獲刑積等三千餘人”.

27) 『삼국사기』 권36, 잡지5, 지리3, 운주, 임성군; 『삼국유사』 권2, 기이2, 후백제 건원.

시간이 흐른 뒤인 757년(경덕왕 16)에 임성군이라 하였다. 그리고 고려 초가 940년(태조 23)이라고 하였다.²⁸⁾ 따라서 대흥군이라는 고을 이름은 고려 태조대에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임존군전투가 벌어진 925년부터 940년 사이에 대흥군이라는 이름이 처음 작명되었을 것이다. 고을 이름의 뜻은 “크게 번성하여 일어난다[대흥(大興)]”라는 좋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후에 940년 전국 군현제도가 정비될 적에 고을 이름(대흥군)이 확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나)-②에서 대흥군(대흥현)에 봉수산과 임존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해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던 임존성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대동지지』에서는 봉수산에 임존성이 있다고 하였다.²⁹⁾ 따라서 925년 10월에 벌어진 임존군전투의 주 전장은 봉수산 임존성이라고 단정된다. 그런데 봉수산을 백제 때 임존산(任存山)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³⁰⁾ 봉수산이라는 산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임존산과 봉수산, 두 이름이 함께 사용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를 알려주는 자료는 찾아지지 않는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신라의 임성군이 웅주(충남 공주) 관할로 되어 있다.³¹⁾ 나)-①과 ②에서 1018년(현종 9)에 이곳이 홍주(운주, 충남 홍성) 관할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고려 초에 이 일대의 내속 관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925년 임존군전투와 관련된 영향이 아닐까 한다. 임존군과 운주, 이 두 곳에 어떠한 역학 관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터이다.

위에 열거된 사실로 보아 925년 10월에 벌어진 임존군전투 현장은 현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봉수산에 자리 잡고 있는 임존성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임존성은 예산군 대흥면·광시면·홍성군 금마면 경계에 자리한 봉수산 정상부에 있다. 산세가 험한 곳에 자리한 테피식 석축성

28) 『대동지지』 권5, 충청도, 대흥, 연혁.

29) 『대동지지』 권5, 충청도, 대흥, 성지.

30) 『삼국사기』 권44, 열전4, 흑치상지.

31) 『삼국사기』 권36, 잡지5, 지리3, 웅주, 임성군.

인 이곳은 660년 이후 백제 복국(復國) 세력의 거점이었다.³²⁾ 임존성의 초축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660년에는 확실하게 존재했었다.³³⁾ 실제 답사해 보면, 봉수산은 지세가 험하고 석재(石材)가 풍부한 곳이다. 따라서 660년 당시에 석성이 있고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큰 목책과 작은 목책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지세(地勢)가 험한데 특히 동쪽과 서쪽은 바위와 급경사가 많아 북쪽과 남쪽에 비해 더 험한 형세를 가지고 있다.

성의 둘레가 5,194척이라 하였는데³⁴⁾ 사료 가)에서 백제 복국 세력의 군사가 많았다는 것과 부합한다 하겠다. 임존성은 천혜의 지형에 세워진 요새이며 군사적 우수성을 가졌던 큰 성이었다. 성의 서쪽 벽에서 홍성읍(운주)이 잘 보인다. 그리고 북쪽 벽에서는 예산읍 방향과 아산만이 조망된다. 이처럼 임존성에서는 사방의 적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조망권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는 현지답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안들이다. 지금까지 임존성의 백제 복국 거사와 역사적 배경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 기술하겠지만 특히 임존성에서 운주성(운주, 충남 홍성 홍주성) 일대가 잘 조망된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임존성에서 운주성 서쪽에 있는 운주 고을 진산(鎭山)인 월산(月山, 백월산)³⁵⁾도 잘 보인다. 이는 일대에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장점이라 하겠다. 임존성은 이처럼 전쟁 수행 상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32) 『문화유적분포지도 - 예산군』,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212~213쪽.

33) 한편, 백제 임존성은 현 봉수산 임존성이 아니라 홍성 학성산성이라는 견해도 있다 (서정석, 「홍성지역의 산성과 백제의 군현」, 『백제문화』 47,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12, 63~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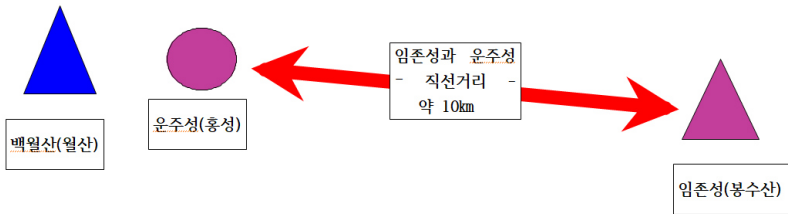
34) 현재 임존성의 규모는 성곽 둘레 2,450m, 성벽 높이 2.6m~4.2m, 성벽 너비 1.6~3.5m로 알려져 있다(『충청남도 문화재대관』1,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298쪽). 사료 나)-②에서 우물은 3개가 있다고 하였다.

3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산천, 월산(月山).



<그림 1> 운주성(왼쪽, 서쪽)과 임존성(오른쪽, 동쪽) 일대³⁶⁾

<그림 1> 지도에 필자가 답사한 바를 토대로 임존성에서 운주성까지를 직선으로 그어 보았다. <그림 1>은 다시 <그림 2>의 약도로 작성할 수 있다.



<그림 2> 임존성 일대 약도

<그림 2>의 양방향 화살표 오른쪽(동쪽) 시작 부분이 임존성이고, 왼쪽(서쪽) 끝 부분이 운주성이다. 두 성의 지도상 직선거리는 약 10km로 가까운 거리이다.³⁷⁾ 임존성이 있는 봉수산의 높이가 484m이고, 운주성

36) 지도출전: 2022년 08월 14일, 다음 위성지도 인용 참고.

37) 필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두 성 사이를 말의 속도인 시속 약 60km로 주행해 보았다. 거리는 약 15km이고, 소요 시간은 약 30분이었다(2015년 6월 29일 답사, 김명진, 앞의 논문, 2015, 192쪽 주76 참고). 두 성 사이에 험한 지형은 없기 때문에 당사와 현재 도로와의 차이는 크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은 평지이기 때문에 잘 조망되고 있다. 운주성의 서편에 있는 백월산(월산)에서도 임존성은 잘 조망된다. 뒤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왜 왕건이 운주를 공략하기 전에 임존성을 공략했는지 그 이유가 현장답사를 통해 잘 이해되고 있다.

Ⅲ. 충청지역의 판세와 임존군

925년 10월에 임존군전투가 벌어졌는데 그즈음 충청지역의 판세는 고려와 후백제의 첨예한 대결 형세였다. 즉 양국의 국왕인 왕건과 견훤의 각축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왕건이 충청지역에 군사를 이끌고 활동한 첫 시기는 태봉(泰封, 고려, 마진) 국왕 궁예 휘하의 장수 시절이었다. 왕건은 20세인 896년에 발어참성 성주로 임명되었다. 900년에 궁예가 왕건에게 광주(廣州, 경기도 광주)·충주·청주 등 3개 주와 당성(唐城, 경기도 화성)·괴양(槐壤, 충북 괴산) 등 군현을 정벌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왕건은 이를 다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인하여 궁예는 왕건에게 아찬 벼슬을 주었다.³⁸⁾

여기에서 태봉의 충청지역 영역은 내륙으로 상당히 내려와 차지한 형상이었다. 청주일대가 태봉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해 충남지역은 아직 뚜렷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았다. 특히 당성이 태봉의 영역으로 포함되었다 했으므로 대체로 아산만 북부지역까지만 영역화 했다고 이해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태봉의 영역은 충청지역에서 남쪽으로 확장되었다. 904년에 공주장군 홍기(弘奇)가 궁예에게 귀부하였다.³⁹⁾ 궁예 말년에는 이혼암(伊昕巖)의 습격으로 공주가 궁예의 영역이 되었다.⁴⁰⁾ 이는 904년에 현 충남 공주 일대가 태봉의 영역이 되었다가 어느 시점에 후백제에게 빼앗겼다가 궁예 말년에 이혼암의 활약으로 다시 태봉의

3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39)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40)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이혼암.

영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왕건이 즉위한 후인 918년 8월에 웅주(熊州, 공주)·운주(運州) 등 10여 주현이 모반하여 후백제로 넘어갔었다.⁴¹⁾ 이를 통해 왕건이 즉위하기 이전에 궁예가 차지한 충남지역 영역은 웅주와 운주를 잇는 선 북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충북지역에서는 왕건이 즉위하기 전까지 매곡성(충북 보은군 회인면)의 지역세력인 공직(龔直)이 궁예 휘하에 있었다.⁴²⁾ 따라서 왕건이 즉위하기 이전 충청지역에서 태봉과 후백제의 전선(戰線, 접경선, 국경선)은 운주에서 웅주를 거쳐 매곡성으로 연결되었다. 당연히 아산만 일대는 태봉의 영역이었다.



<그림 3> 왕건의 즉위 직후 고려와 후백제 접경선(운주-웅주-매곡성)⁴³⁾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태봉의 영역은 충청지역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유리한 판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아산만 일대가 태봉의

4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42)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환선길 부(附) 임춘길; 권92, 열전5, 공직.

43) 지도출전: 2022년 07월 27일, 다음 위성지도 인용 참고.

안정권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가 지속되지는 않았다. 918년 6월에 큰 변화가 닥쳤다. 원래 장점이 많았던 공예가 민심을 잃게 되었다. 공예 휘하 장수였던 왕건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부하들의 추대라는 형식을 취하고서 왕건은 공예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고려(高麗)라 하고 독자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다. 이때가 918년 6월 15일이었다.⁴⁴⁾

당시 수도인 철원(강원도)에서 역성혁명이 일어나며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여파는 강하였기에 후백제와의 접경지역인 충청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었다. 신생 고려와 후백제의 전선인 충청지역에서 파고가 크게 일었다. 왕건의 즉위에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즉위 첫 해인 918년에 반란 사건이 6차례나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반란이 충청지역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었다.⁴⁵⁾ 왕건은 이를 바로 수습하여야만 하였다. 이를 방치하면 신생 국가의 뿌리가 흔들리며 와해되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왕건은 같은 해에 반란 사건 모두를 해결하였다. 이후, 이러한 반란 사건은 왕건의 치세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반란을 진압하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아산만 일대에서의 왕건의 행위가 주목된다. 왕건이 행한 아산만과 임존성 근처에서의 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주(충남 아산) 및 예산현(충남 예산)과 관련된 왕건의 조치가 임존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다음 사료를 보자.

다) [918년 8월 23일(계해)] 웅주·운주 등 10여 주현이 배반하여 백제로 붙었다. 이전 시중(侍中) 김행도(金行壽)를 동남도초토사(東南道招討使)·지아주제군사(知牙州諸軍事)로 임명하였다.⁴⁶⁾

4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하6월 병진.

45) 김명진, 앞의 논문(2012a), 7~11쪽 참고.

4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以熊運等十餘州縣 叛附百濟 命前侍中金行壽爲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

918년에 발생한 6차례 반란 중에서 영역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사례가 8월 23일(계해일)에 일어났다. 웅주와 운주 등 인근 10여 개 주현이 반란하여 견훤의 후백제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림 3>에 나타내 보였던 양국의 접경선이 무너지면서 고려의 영역이 북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건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서 8월 23일에 김행도를 책임자로 파견하였다. 그런데 김행도의 관직이 이전 시중이었다고 한다.

왕건이 918년 6월 15일에 즉위하고 첫 인사는 즉위 5일 후에 단행되었다. 6월 20일에 단행된 신유일 조서에 의해 첫 인사가 공표되었는데 그 첫 인물이 김행도였다. 한찬(韓粦) 김행도를 광평시중(廣評侍中)으로 임명하였다. 신생 고려가 건국 된지 불과 5일 만에 최고 관직인 광평시중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김행도의 고려 건국 과정에서의 공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왕건은 신유일 조서에서 관직을 새로 임명함에 유능함을 최우선으로 언급하였다.⁴⁷⁾

이러한 김행도가 광평시중직을 사임하고⁴⁸⁾ 아산만의 아주로 특명을 받고 내려왔다. 신생 국가의 중앙에서 최고위직인 광평시중이 임명 된지 불과 약 2달 만에 그 직을 사임하고 동남도초토사·지아주제군사에 임명되어 내려왔던 것이다. 그만큼 웅주·운주 등 인근 10여 개 주현 배반 사태의 심각성이 읽혀진다. 사료 다)는 『고려사』에 기록된 것인데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이 『고려사절요』에서 찾아진다. 『고려사』의 내용에 더해 『고려사절요』에서는 왕건이 김행도로 하여금 “대비하라”[이비지(以備之)]⁴⁹⁾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김행도의 동남도초토사·지아주제군사 직임 수행은 두 가지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웅주와 운주 일대 배반이 아주 근처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고, 고려 측에서 아산만을 사수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4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하6월 신유.

48) 김행도를 이전 시중(前侍中)이라 했으므로 그는 시중을 사임하고 아주로 내려왔다고 판단된다.

49)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무인 원년 8월; 장동익, 『고려사세가 초기편보유』 1, 경인문화사, 2014, 132~133쪽 참고.

김행도는 이를 위해 잘 대비하여 해결하였다. 왕건은 즉위 첫 해에 발생한 반란을 그 해에 모두 해결하였다. 물론 견훤의 후백제가 더 이상 복상하는 것을 막으면서 아주를 지켰다. 여기에 아주에서 김행도의 역할이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고려는 아산만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었다. 고려의 주 뱃길은 수도 개경(개성) 가까운 예성강에서 서해를 이용해 각지로 통하는 것이었다. 그 중 하나가 예성강에서 나와 서해를 거쳐 아산만으로 연결되는 뱃길이었다. 아산만 해상로는 곧 진군로이기도 하며 충청 각지로 연결할 수 있는 매우 빠른 교통로였다.⁵⁰⁾ 왕건은 이를 위해 아산만을 수호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아주 일대까지 후백제 영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아야만 했던 것이다.

한편, 반란의 와중에 매곡성의 공직은 견훤에게 귀부하였다.⁵¹⁾ 해가 바뀌어 919년에 왕건은 아주 서편에 새롭게 예산현을 설치하였다.

라) (919년 8월에) 오산성(烏山城)을 고쳐서 예산현(禮山縣)으로 하고, 대상(大相) 애선(哀宣)과 홍유(洪儒)를 보내어 유민 5백여 호를 모아서 편안하게 하였다.⁵²⁾

왕건은 애선과 홍유를 예산으로 내려 보냈다. 이 두 장수는 전장에 앞장선 인물들이었다. 특히 홍유는 왕건을 추대한 대표적 인물로서 개국 1등공신 4인방 중의 한 사람이었다.⁵³⁾ 이러한 무장들이 예산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일대를 사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바로 임존성과 북쪽으로 접한 곳이었다. 918년 8월, 웅주·운주 등 인근 10여 개 주현이 배반하였을 때 임존성도 함께 하여 후백제 영역으로 바뀌었다고 판단된다.⁵⁴⁾ 그래서 왕건은 대응 차원에서 그 다음 해인 919년 8월에

50) 김명진, 앞의 논문(2012a), 15~20쪽.

51) 『고려사』 권92, 열전5, 공직.

52)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기묘 2년 추8월, “改烏山城 爲禮山縣 遣大相哀宣 洪儒 安集流民五百餘戶”.

53) 개국 4인방이자 1등공신은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이었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정명 4년 6월 을묘; 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신해).

예산현을 설치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예산현(오산성)과 임존성 사이가 새로운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임존군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고려와 후백제의 충청지역에서의 접경선은 예산현과 임존군 사이, 아주 바로 남쪽, 청주와 매곡성 사이로 그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체로 <그림 3>의 접경선보다 북상하였음은 분명하였다. 고려는 이 접경선을 유지하면서 아산만을 확보해야만 하였다. 왕건은 충남지역의 고려 영역을 좀 더 남쪽으로 다시 확장하면서 충남쪽 서해와 아산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왕건의 희망사항이 충족되려면 운주가 고려의 영역으로 포함되어야만 하였다.

IV. 전투 전개과정과 유금필의 역할

925년 10월에 임존군(임존성)에서 고려와 후백제가 격돌하였다. 이곳은 7세기 백제 복국 거사 시에 요새로 기능하였던 곳이다. 임존성은 궁예 정권 때에 태봉의 영역이었으므로 918년 6월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즉위할 당시에도 고려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연이어 일어난 반란의 회오리 속에서 고려 건국 후 불과 2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8월에 웅주와 운주 등 10여 개 주현이 배반하였다. 이때 임존군(임존성)이 후백제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앞에서 추정하였다.

고려 통일전쟁기 충청지역에서 벌어진 최대 전투이자 중요한 전투는 운주전투였다. 운주전투는 927년 1차전투⁵⁴⁾와 934년 2차전투⁵⁵⁾가 벌어질 정도로 치열하였다. 그런데 927년 제1차 운주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인접한 임존군에서 925년에 전투가 벌어졌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지리적 배경으로 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보나 왜 운주전투 이전에 임존

54) 김갑동, 「百濟 이후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 28,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99: 「예산지역」,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173~174쪽.

5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신유.

5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7년 9월 정사.

군전투가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전투 현장 일대 답사는 사료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 전투의 고려군 지휘관인 유금필(?~941)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금필은 평주(황해도 평산) 출신 또는 무송현(전북 고창) 출신 등 그 고향에 대한 이견(異見)들이 있다.⁵⁷⁾ 시호는 충절(忠節)인데, 그는 시호의 뜻처럼 국왕 왕건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또한 지략과 용맹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⁵⁸⁾

918년 6월에 왕건이 개국하며 즉위할 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다. 왕건은 이들을 두 달 후인 8월에 포상하였다. 1등공신은 4명인데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이었다. 2등공신은 7명인데 견권 등이었다. 3등공신은 성명미상인데 2천 여 명이었다.⁵⁹⁾ 1등과 2등공신 명단에 유금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등공신에 그의 이름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그는 왕건의 개국에 큰 공을 세우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건이 개국할 당시에 유금필은 왕건을 섬겨 마군장군(馬軍將軍)에 임명되었다고 한다.⁶⁰⁾ 고려 개국 한 달 후인 7월에 그는 마군장군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⁶¹⁾ 따라서 유금필은 적어도 개국 직후부터 왕건에게 충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920년(태조 3) 3월에 북계 골암진 방어에 성공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⁶²⁾ 북쪽에서 활동하다 공을 세운 유금필은 925년(태조 8) 10월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아래 지방으로 내려갔다. 연산진전투(일모산성)와 임존군전투 수행이 그것이다.

57) 유금필의 고향에 대한 견해 소개는,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군사』 69, 2008, 37쪽 참고.

58)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5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신해.

60)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61)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무인 원년 추7월.

62)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경진 3년 3월; 유금필의 군사 활동 시기를 5개로 나누어 그 제1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처음 등장하여 골암진에서 활약한 경우까지라는 견해가 참고된다(신성재,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 유금필」, 『군사』 102, 2017, 232~233쪽).

다음은 임존군 전투와 관련된 사료이다.

마)-① [925년 겨울 10월 10일(기사己巳)] 고을부(高鬱府, 경북 영천) 장군 능문(能文)이 군사를 거느리고 내투(來投)하였는데, 그 성이 신라의 왕도(경북 경주)와 가까워서 힘써 위로하여 돌려보내고 오직 휘하의 시랑 배근과 대감 명재·상술·궁식 등만 남게 하였다.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유금필(庾黔弼)을 보내 백제를 공격하였다.⁶³⁾

마)-② (925년 겨울 10월) 정서대장군 유금필을 보내 백제의 연산진(燕山鎭)을 공격하여 장군 길환(吉喚)을 죽였다. 또 임존군을 공격하여 3,0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⁶⁴⁾

마)-③ 임존(임존성)을 공략한[발(拔)] 날에는 형적(邢積) 등 수백 명이 몸을 버렸다.⁶⁵⁾

우선 『고려사』 내용인 마)-①이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지 살펴보자. 그 장소(전장)와 날짜부터 가려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좋을 듯하다. 925년(태조 8) 10월 10일(기사)에 고을부장군 능문이 왕건에게 내투하였다. 고을부는 현 경상북도 영천시(永川市)의 당시 이름이었다.⁶⁶⁾ 그런데 그 성이 신라왕도에 가까워서 돌려보내고 휘하 몇 명만 남게 하였다. 그리고 유금필을 서쪽 정벌 임무를 부여한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에 임명하여 후백제를 공격하게 하였다고 한다. 얼핏 생각하면 유금필이 경북 영천 및 경주 근처에서 후백제군과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어서 『고려사절요』 내용인 마)-②를 통해서 유금필의 행적과 관련된 장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금필의 직임이 서쪽을 정벌하는

6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8년 동10월 기사, “高鬱府將軍能文 率士卒來投 以其城近新羅王都 勞慰遣還 唯留麾下侍郎孟近 大監明才 相述 弓式等 遣征西大將軍庾黔弼 攻百濟”.

64)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유 8년 동10월, “遣征西大將軍庾黔弼 攻百濟燕山鎭 殺將軍吉喚 又攻任存郡 殺獲三千餘人”.

65)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拔任存之日 邢積等數百人捐軀”.

66)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영천군(永川郡).

대장군이라는 데에 실마리가 있다. 왕건은 유금필을 정서대장군으로 임명하여 아래 지방으로 내려 보냈다. 유금필의 정서대장군 직임은 고려 통일전쟁기에 유일한 사례였다. 수도 개경에서 볼 적에 아래 지방 서편을 정벌하는 지휘관으로 유금필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 구체적 전장이 연산진(燕山鎭)과 임존군(任存郡)이었다. 임존군은 곧 임존성으로서 현 충남 예산군 대흥면 봉수산에 있는 성이라는 것을 앞에서 확실하게 고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연산진은 어디인가 궁금하다.

연산진은 당시 일모산성(一牟山城)으로도 불리던 곳이었다. 이곳은 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있는 양성산성이다. 즉 연산진, 일모산성, 양성산성은 같은 곳이었다. 일모산성(연산진)에서 고려와 후백제는 격돌하였다. 일모산성전투는 925년 10월 제1차 전투, 932년 7월 제2차 전투, 932년 11월 즈음 제3차 전투 등 3차례 벌어졌다. 마)-②에서는 유금필이 연산진(일모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듯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후백제 장군 길환을 죽이는 등 일정한 성과만 올리고 마쳤다. 이것이 제1차 일모산성전투(연산진)였다.⁶⁷⁾ 장소(전장)가 어느 곳인지 확인되었다. 즉 마)-①은 경상지역과 충청지역의 상황을 함께 기술해 놓은 것이었다.

다음은 날짜를 가려볼 차례이다. 『고려사』 마)-① 내용의 다음 기사 날짜는 같은 달인 10월 16일[을해(乙亥)]이었다. 그 16일 내용은 “왕(태조)이 조물군(조물성)에서 견훤과 교전하였는데 유금필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응원하였다.” 이다.⁶⁸⁾ 조물군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경북 내륙의 어느 곳이라는 것은 명확하다.⁶⁹⁾ 유금필은 16일에 조물군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①의 상황은 넉넉히 잡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즉 6일 사이에 벌어진 전투라고 일단 이해할 수도 있다.

67) 연산진과 일모산성전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문의현; 김명진, 앞의 논문, 2012b' 참고.

6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8년 동10월 을해.

69) 류영철,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2005, 76~78쪽 참고.

정서대장군 유금필은 일모산성에서 일정한 성과만 올린 채 바로 임존군으로 향하였다. 일모산성에서 임존군까지 지도 상 직선거리는 약 63km이다. 유금필의 군대는 기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기동해도 이동하는데 하루는 소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1차 일모산성전투 소요시간 최소 하루, 일모산성에서 임존성까지 이동 소요시간 최소 하루가 계산된다.

이상과 같은 시간 계산에 의하면, 임존군전투는 10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벌어졌다고 좀 더 좁혀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유금필이 군사를 이끌고 연산군에서 경북 내륙에 있었던 조물성까지 긴급하게 간다 하더라도 최소 하루는 소요된다 하겠다. 큰 전투였던 임존군전투를 마치자마자 조물성까지 간다는 것은 벅찬 진군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 소요 시간 등을 두루 감안한다면, 임존군전투는 10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벌어졌다고 판단된다.⁷⁰⁾

유금필은 925년 10월 12일부터 14일 사이의 어느 시점에 임존성을 공격하였다. 고려와 후백제 양국의 충청지역 접경선에 있는 성들은 공격하기 어려운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여럿이었다. 삼년산성, 일모산성, 임존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금필이 일모산성을 공격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리자마자 임존성을 공격하였다. 여기에 특기할 만한 유금필의 능력이 찾아진다.

10일에 요새인 일모산성에서 전투를 치루고 바로 지도 상 직선거리 약 63km 떨어진 임존성을 공격한 유금필의 지휘관으로서의 능력과 지휘 부대의 빠른 기동성은 대단한 것이었다. 일모산성과 임존성은 험한 지형을 이용한 곳에 자리한 요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유금필은 일모산성 공격 시 사용한 공성장비와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임존성을 공격했을 터이다. 후백제로서는 고려가 일모산성 공격 직후 숨고를 틔도 없이 임존성을 공격해 왔으므로 당황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금필의 장수로서의 용맹함은 고려 통일전쟁기 그 누구보다도 으뜸

70) 임존군전투의 개시일과 마감일은 모두 10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존재했을 것이다.

이었다. 그는 험한 임존성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데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축성된 임존성의 둘레는 약 2,450m나 될 정도로 큰 성이다. 당시에 고려군이 후백제군의 임존성을 포위 공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 따라서 특정 지점을 집중공격하는 것이 상수였다. 임존성과 그 서쪽 운주성은 후백제 영역이었으므로 당연히 임존성의 남쪽도 후백제 영역이었다. 특히 서쪽(서벽)은 가까운 운주성 쪽에서 보이는 곳이기에 서쪽을 공격 지점으로 정하면 고려군이 후백제 지원군을 부르는 우를 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금필의 임존성 공격 지점은 그 북쪽과 동쪽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현장 답사를 해보면, 유금필 부대가 임존성을 함락시키려면 지형 상 북쪽과 남쪽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 지형 조건이 그러하였다. 동쪽과 서쪽은 암벽이 있는 험한 지형이어서 공격 시 큰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모한 공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특히 동쪽이 제일 험하고 무한천이 해자 역할을 하였다.⁷¹⁾ 남쪽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 후백제 영역이어서 불가능한 공격로였다. 그리고 유금필이 임존성을 공격한다면 후백제 지원군이 바로 올 수 있는 방향은 당연히 남쪽과 서쪽이었다.

이러한 임존성의 지형과 일대 세력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유금필의 공격 선택 방향은 고려 영역인 예산현과 접해 있는 북쪽이었다. 유금필 부대의 임존성 공격은 기습공격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북쪽에서 공격해야만 하였다. 지형도 북쪽이 상대적으로 덜 험하였기에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유금필은 임존성의 북쪽을 ‘단선집중공격(單線集中攻撃)’하여 성공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금필은 임존군의 치소인 임존성을 공격하여 일정한 성과만 올렸는지 완전히 함락했는지 궁금하다. 마)-①과 ②는 공(攻), 공격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마)-③은 발(拔)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왕건도 견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임존성을 ‘발(拔)’했다고 표현한 바

71) 현재 예당저수지가 임존성 동쪽에 있는데, 예당저수지 일대는 원래 무한천 상류이면서 밀물 시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었다.

있다.⁷²⁾ 발(拔)에 대한 용례로 예를 들면, ‘발본색원(拔本塞源)’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사전적 해석은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발(拔)이라는 글자는 완전히 뽑아버린다는 뜻이므로 후백제 임존성은 고려에 함락되었다고 판단된다. 마)-②와 마)-③에 의하면, 유금필은 임존군전투에서 후백제군 3,0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는데 그중에 후백제 임존성 장수로 보이는 형적을 포함하여 수백 명을 죽였다고 하였다. 이는 형적 등 수백 명을 죽이고 2천 몇 백 명은 포로로 잡았다는 것인데, 그 전체 수가 3,000여 명이라고 해석된다. 후백제군의 희생 숫자는 이 전투의 치열함과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임존군전투 시 유금필이 이끈 고려군 총수는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였다고 추정된다.⁷³⁾ 이 숫자는 공성군(攻城軍)은 수성군(守城軍)보다 배 이상의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 등을 생각한 추정치이다. 그런가하면 왕건이 927년 견훤의 신라왕도 공격 시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고려군이 1만이었다.⁷⁴⁾ 936년에는 왕건이 일리천전투 선발대로 군사 1만을 천안부(충남 천안)로 보낸바 있다.⁷⁵⁾ 따라서 왕건이 상시 동원 가능한 고려군 총수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 숫자 등을 참고한다면 임존군전투 시 고려군 총수가 6,000명에서 10,000명일 것이라는 추정은 허락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때 유금필이 이끈 고려군에 현지인들이 포함되었거나 협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이한 기록이 있어서 그 단서로 삼을 수 있다. 『고려사』 지리지·『세종장헌대왕실록』 지리지·『대동지지』 등에 의하면, 대흥군 대잠도(大岑島)에 소정방(蘇定方) 사당이 있었다고 한

7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춘정월.

73) 김명진, 앞의 논문(2012a), 22~23쪽. 한편, 임존군전투 시 고려군의 총수는 최소 5천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 견해도 참고된다(김갑동, 「百濟 이후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 28,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99: 「예산지역」,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177쪽).

7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7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하6월.

다. 그리고 고려 정부가 봄과 가을에 향축(香祝)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⁷⁶⁾ 소정방은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였다. 옛 백제 임존성 가까운 곳에 당나라 장수를 기리는 사당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멸망시켰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소정방을 위한 사당에 해마다 향축까지 주면서 제사지내도록 장려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의아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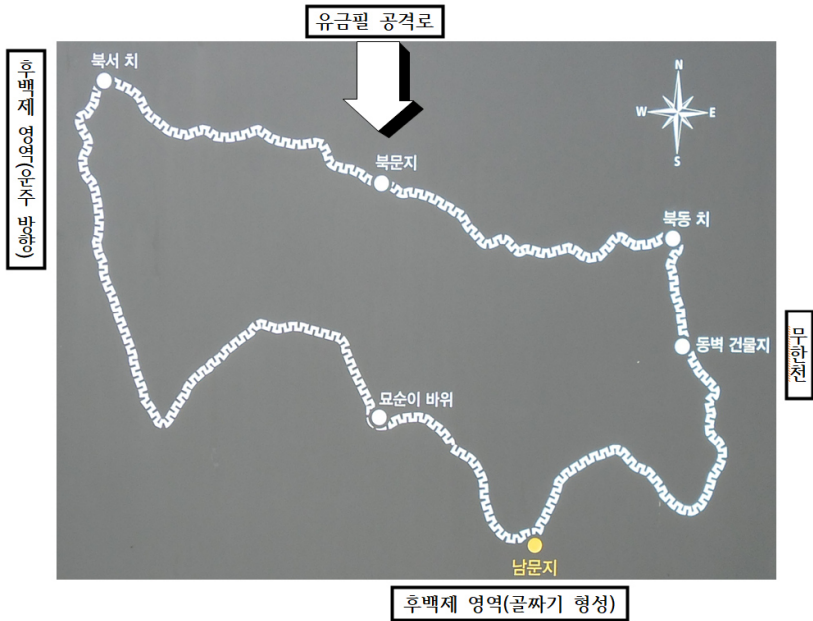
아마도 옛 백제 멸망 후에 신라 사람들 또는 당나라 사람들이 임존성 일대에서 일정한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던 것 같다.⁷⁷⁾ 그 후에들이 유금필의 임존성 공격 시 고려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 공을 기리어 태조 왕건이 포상차원에서 고을 이름을 대흥군(大興郡)이라는 좋은 의미의 단어로 정해 주었다.⁷⁸⁾ 그리고 왕건은 소정방의 제사에 향축을 내려주었으며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임존군전투 상황을 약도로 작성해 보면 <그림 4>와 같을 것이다.

76)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홍주, 대흥군;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대흥현; 『대동지지』 권5, 충청도, 대흥, 사원, 한편, 대잠도가 예당저수지를 조성할 적에 수몰되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흥미롭다(강성복, 「대흥 소도독사와 읍치 성황사」, 『백제연구』 49, 충남대 백제연구소, 2009, 109쪽).

77) 임존성 일대가 백제 멸망 후에 친 신라적인 지역으로 변화했다는 견해가 참고된다(서정식, 앞의 논문, 2012, 67쪽).

78) ‘대흥(大興)’은 “크게 번성하여 일어난다”는 좋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발해 문왕의 연호(737~793)와 중국 동진 원제의 연호[大興(太興)318~321]로 쓰이기도 하였다. 왕건은 그만큼 격이 높은 뜻을 가진 단어를 임존군의 새로운 고을이름으로 하사하였다. 이는 인근 천안부(天安府)의 천안(天安)과 비슷한 경우도 하다.



<그림 4> 임존군전투 상황도⁷⁹⁾

요컨대 고려 유금필은 925년 10월 12일에서 14일 사이 어느 날에 임존성을 공격하였다. 지역민까지 포함하여 6,000~10,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유금필 군대는 임존성의 북쪽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고려군은 임존성 후백제군 장수인 형적을 포함하여 수백 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사로잡았다. 유금필이 죽이거나 사로잡은 후백제군 총 수는 3,000여 명이었다. 이로써 고려는 일대의 거점인 운주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임존성의 서벽에서 보면 운주성은 그대로 노출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존군전투에서의 유금필의 활약은 태조 왕건이 수행한 통일전쟁 충청지역 판세에 큰 덧셈을 가져다주었다. 이후 왕건은 운주에서 견훤의

79) 지도출전: 2021년 05월 19일, 임존성 안내판 지도를 인용하여 작성.

후백제를 상대로 두 차례 전투를 벌이어 승리하였다. 특히 934년 9월의 운주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함으로서 견훤은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다.⁸⁰⁾ 원래 웅주(공주) 관할이었던 임존군(대흥군)이 뒤에 홍주(운주, 홍성) 관할로 그 내속이 변한 것은 이러한 정황 때문이었으리라 판단된다.

이상으로 왕건이 최종 승자가 되는데 있어서 유금필의 역할이 컸음을 증명하는 대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임존군전투 승리였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후에도 유금필은 통일전쟁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유금필의 딸은 태조 왕건의 제 9비인 동양원부인 유씨였다.⁸¹⁾ 또한 그는 사후에 개국 1등공신 4명, 그리고 최응과 함께 조대(祖代) 6공신(功臣)에 포함되었다.⁸²⁾ 이처럼 그는 그 공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V. 맺음말

925년(태조 8) 10월에 고려 태조 왕건은 유금필에게 명하여 후백제 임존군[임존성(任存城), 대흥군]을 공략하는데 성공하였다. 임존군전투의 주 전장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있는 임존성(봉수산성, 대흥산성)이었다. 이곳은 옛 백제가 신라·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적에 복국(復國) 항전을 하였는데 그 주요 근거지 중 하나였다. 임존성은 660년 8월 26일의 기록부터 등장하였다가 925년 임존군전투 시 다시 크게 주목되며 재등장하였다.

임존성은 천혜 요새로서의 자연조건을 잘 갖춘 봉수산(임존산) 정상부에 있는 테피식 석축성이다. 이곳은 적이 공격하기 어려운 입지 조건과 사방 관조까지 잘되는 조건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특히 고려 통일전쟁기에 임존성과 일대 거점인 운주성(운주, 홍주, 충남 홍성)은 지도

80)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군사』 69, 2008, 54쪽; 김명진, 앞의 논문, 2015, 204쪽.

81)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 동양원부인 유씨.

82)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군사』 69, 2008, 61~64쪽.

상 직선거리 약 10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각기 자리 잡고 있었다. 더군다나 임존성 서벽에서 운주성은 잘 보이고 있다. 왜 왕건이 운주를 정벌하기 전에 유금필로 하여금 임존성을 먼저 정벌하게 했는지 현장에 답이 있었다.

918년 왕건의 즉위 직후 고려와 후백제의 충청지역 접경선은 운주-웅주(충남 공주)-매곡성(충북 보은군 회인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즉위 첫해에 반란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 충청지역 접경선은 북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특히 918년 8월에 웅주와 운주 등 10여 개 주현이 모반하여 후백제로 넘어가면서 임존성과 운주성은 고려의 영역에서 이탈하였다. 왕건은 즉시 김행도를 동남도초토사·지아주제군사로 임명하여 아주(충남 아산)로 내려 보냈다.

이어서 왕건은 919년 8월에는 애선과 홍유를 내려 보내 예산현(충남 예산)을 설치하고 유민들을 모아 편안하게 하였다. 이는 더 이상 영역의 후퇴를 막으면서 해상교통로 및 진군로 역할 수행 시 중요한 아산만과 그 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왕건은 다시 충남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해상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당시 일대 거점인 운주를 장악하여야만 하였다. 통일전쟁기 충청지역에서 벌어진 최대 최고 전투는 운주전투였다(927년 1차전투, 934년 2차전투). 그런데 운주를 장악하려면 그 선행 조건은 임존성 장악이었다.

925년 당시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국왕 견훤은 충남지역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운주와 임존성은 후백제 영역이었고, 아주와 예산현은 고려 영역이었다. 왕건은 유금필로 하여금 임존성을 함락하도록 명하였다. 유금필은 왕건에 대한 충성심과 장수로서의 지략과 용맹함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마침내 925년 10월, 왕건은 유금필을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으로 임명하여 연산진(일모산성, 충북 청주시 문의면 양성산성)과 임존군(임존성)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두 곳은 험한 지형 조건을 갖춘 곳에 있는 요새였다. 유금필은 먼저 연산진을 공격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리자마자 바로 기동성을 발휘하여 임존성으로 군대를 이끌고 갔다. 좀 더 자세한 임존성 공격 개시 날짜는 10월 12일부터 14일의 3일 중 어

는 날로 고찰할 수 있었다.

임존군전투의 실상은 봉수산 임존성의 지형적 조건 및 판세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습공격 성격을 가진 임존군전투 시 유금필의 공격 지점은 임존성의 북쪽(북벽)이었다. 고려군의 총수는 대략 6,000~10,000명 정도였으며 북벽에 ‘단선집중공격(單線集中攻撃)’을 가하였다. 유금필은 대승하여 완전하게 임존성을 함락하였는데, 당시 임존성을 사수하였던 후백제 장수는 형적이었다. 고려군에 의해 후백제군은 형적을 비롯한 3,000여 명이 죽거나 사로잡혔다. 이 전투 시 일단의 지역민들이 고려군에게 협조를 하였다. 협조한 이들은 당나라 소정방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한다.

왕건은 전투 승리 후 포상을 하였다. 임존군의 새 고을 이름은 크게 흥하라는 좋은 의미를 가진 대흥군(大興郡)으로 정해 주었다. 또한 왕건은 유금필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었다. 이후 왕건은 운주에서 건훤의 후백제를 상대로 두 차례 전투를 벌이며 승리하였다. 특히 934년 9월의 운주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함으로써 건훤은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다. 원래 웅주(공주) 관할이었던 대흥군(임존성)이 홍주(운주, 홍성) 관할로 그 내속이 변한 것은 이러한 정황 때문이었으리라 판단된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세종장헌대왕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문화유적분포지도 - 예산군』,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충청남도 문화재대관』1,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김명진, 『통일과 전쟁, 고려 태조 왕건』, 해안, 2018.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해안, 2008.

신성재,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해안, 2016.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해안, 2018.

장동익, 『고려사세가 초기편보유』1, 경인문화사, 2014.

강성복, 「대흥 소도독사와 읍치 성황사」, 『백제연구』 49, 충남대 백제연구소,
2009.

김갑동, 「高麗建國期の 清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한국사연구회, 1985.

김갑동, 「百濟 이후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 28,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99.

김갑동, 「百濟遺民의 動向과 羅末麗初의 公州」, 『역사와 역사교육』 3·4호 합집, 웅
진사학회, 1999.

김갑동, 「羅末麗初의 沔川과 卜智謙」,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한국중세사학회,
2001.

김갑동, 「나말려초 天安府의 성립과 그 동향」, 『韓國史研究』 117, 한국사연구회, 2002.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 74, 한국사학회,
2004.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군사』 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김갑동, 「고려 태조 왕건과 유금필 장군」, 『인문과학논문집』 46, 대전대 인문과학 연구소, 2009.
- 김갑동, 「천안도독부의 성립과 군현제 변화」,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11.
-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 학회, 2007.
- 김명진, 「太祖王建의 충청지역 공략과 아산만 확보」, 『역사와 담론』 51, 호서사학회, 2008.
- 김명진, 「高麗 太祖 王建의 統一戰爭 研究」,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 역사연구소, 2012a.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군사』 85,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2012b.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군사』 96,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5.
- 김명진, 「고려 태조대 천안지역의 사상적 동향과 사찰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48, 한국중세사학회, 2017.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주 일대 공략과정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6, 한국 중세사학회, 2019.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삼년산성전투, 그 배경과 전개과정 검토」, 『군사』 1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 김수태, 「高麗初 忠州地方의 豪族 - 忠州 劉氏를 중심으로」, 『충청문화연구』 1, 한 남대 충청문화연구소, 1989.
- 김수태, 「新羅末·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 『中原文化論叢』 1, 충북대 중원문 화연구소, 1997.
- 김주성, 「高麗初 淸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한국사연구회, 1988.
- 류영철, 「高麗와 後百濟의 爭霸過程 研究」,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서정석, 「홍성지역의 산성과 백제의 군현」, 『백제문화』 47, 공주대 백제문화연구 소, 2012.
- 신성재, 「弓裔政權의 軍事政策와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6.

신성재,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군사』 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군사』 1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신호철, 「新羅末·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湖西文化研究』 10,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

신호철,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 地方勢力」, 『湖西文化研究』 11,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3.

신호철, 「高麗의 建國과 鎭州 豪族 - 鎭州 林氏의 역할을 중심으로」, 『中原文化論叢』 1,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997.

윤용혁, 「936년 고려의 통일전쟁과 개태사」, 『韓國學報』 114, 일지사, 2004.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이정란, 「太祖妃 天安府院夫人과 天安府」,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Abstract

The Battle of Imjongun by King Wang Geon of Goryeo dynasty and Yugeumpil's Role

Kim, Myeong-ji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First, Imjongun was an important military hub in the Chungcheong region at the time.

Second, The biggest battle in the Chungcheong region was the Battle of Unju. The Battle of Imjongun was the outpost battle.

Third, Yugeumpil, a great general of the Goryeo Army, was dispatched to the Battle of Imjongun. In this battle, the Goryeo army was victorious and had an advantageous position. In addition, Gyeon Hwon had a very unfavorable situation.

keywords :

Wang Geon, Gyeon Hwon, Imjongun, Unju, the Battle of Imjongun, Yugeumpil's Role

